

함부르크 골목구역의 철거와 보전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로-

정문수* · † 정진성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교수

The Eviction and Preservation of Gängeviertel in Hamburg - From the Gentrification to the Right to the City -

Moon-Soo Jeong* · † Chin-Sung Dury Chung

*, † Department of European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쟁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골목구역,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에 대한 권리, 성장하는 도시, 콤 인디 쟁에

Abstract : Hamburg's development politics like "metropolis Hamburg - a growing city" demonstrates an important economic and demographic growth during 1997 to 2008. Beyond the positive factors with the idea of creative city, only selected class of people are involved in the city's active living, the others experience only gentrification. The Gängeviertel, where the Hamburg's working class and dockworkers had lived, will be analysed as a historical important place of the gentrification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is paper focuses on the actual Hamburg's movement of the initiatives "Komm in die Gänge" and "Right to the City", which took over the last 12 buildings of the Gängeviertel. The Gängeviertel Project, with the slogan "the city is neither a business nor a brand, but a community" could be an example of an alternative and sustainable solution for better living in the urban area of the Hamburg.

Key words : Das Gängeviertel, gentrification, right to the city, a growing city, Komm in die Gänge

1. 머리말

함부르크는 현재 독일 제 2의 도시이며 항구, 내륙수로, 철도, 고속도로를 통해 중·동·북유럽을 연결하는 유럽 제 2의 무역항이기도 하다. 수백 년 동안 해상과 내륙 무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대표적인 한자도시Hanseatic City였음에도 불구하고,¹⁾ 냉전시대의 함부르크는 서방세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에 불과했다. 그런데 20세기 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동구권의 개방으로 유럽에서 함부르크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 핀란드와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함부르크는 지정학적으로 다시 유럽 대륙의 심장부가 되었다.

함부르크의 위상변화는 도시발전계획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함부르크 시정부는 “기업으로서의 함부르크”를 표방하며, 2002년이 되면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로 그 발전계획을 더욱 구체화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펜시티HafenCity 프로젝트다.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함부르크의 구도심인 엘베 강변의 구항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이 프로젝트는 구항 일대의 157헥타르에 대해 주택 약 5,500채를 비롯하여 사무실, 교육 및 문화 시설을 유치하고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안의 도시”, 즉 유럽도시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친수형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정·조, 2011). 이를 통해 함부르크는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의 중핵이면서 중·동·북유럽의 해상과 육상의 문류와 물류의 결절점으로 부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의 함부르크 구항개발의 과정과는 다르게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다기능적이며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함부르크의 위상변화는 도시발전계획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함부르크 시정부는 “기업으로서의 함부르크”를 표방하며, 2002년이 되면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로 그 발전계획을 더욱 구체화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펜시티HafenCity 프로젝트다.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함부르크의 구도심인 엘베 강변의 구항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이 프로젝트는 구항 일대의 157헥타르에 대해 주택 약 5,500채를 비롯하여 사무실, 교육 및 문화 시설을 유치하고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안의 도시”, 즉 유럽도시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친수형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정·조, 2011). 이를 통해 함부르크는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의 중핵이면서 중·동·북유럽의 해상과 육상의 문류와 물류의 결절점으로 부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의 함부르크 구항개발의 과정과는 다르게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다기능적이며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 대표저자 : 종신회원, jms@hhu.ac.kr 051)410-4851

† 교신저자 : 연희원, dury@hhu.ac.kr 051)410-4852

1) 함부르크의 정식 명칭은 자유 한자도시 함부르크(Freie und Hansestadt Hamburg, 약어로는 HH)이다. 한자는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발트해 및 북해 연안의 70-170여 개의 도시들이 상업상의 목적으로 결성한 동맹인데, 1980년에 신한자로 부활하여 국경을 초월한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함부르크 도심재개발 대상 지역의 하나인 골목구역 das Gängeviertel의 12채 건물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철거 반대와 보전 운동의 대상이 된다. 골목구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노동자들의 주거구역이었으나 19세기 말 구항재개발에서부터 20세기 중반 유니레버 건물 신축시까지 지속적으로 철거의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잔존한 12채의 건물이 함부르크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었다. ‘성장하는 도시’ 정책에 따라, 골목구역이 철거대상이 되자 2009년 8월부터 예술가들과 시민단체는 12채의 건물을 점거하여 갤러리와 예술인들의 작업장을 만들었으며, 거리축제와 각종 전시회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이름으로 함부르크의 브랜드를 팔지 말라Not in our name, Marke Hamburg” 는 성명서를 통해 12채 건물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 도심지 재개발 대상 건물점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정부 대응과는 달리(Berliner Linie, 1981) 골목구역 건물의 점거가 함부르크 시는 물론 독일 다른 도시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함부르크 석간신문 등은 “평화로운 점거, 전시회와 골목축제를 통해 함부르크의 예술인들은 역사적인 골목구역을 보존하려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골목구역 점거를 옹호하였다(Hamburg Abendblatt, 2009). 이 운동은 곧 결실을 보게 된다. 2009년 12월 함부르크 시는 골목구역 철거를 계획 중이던 네덜란드의 투자기업으로부터 12개 건물들 다시 사들여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남독일신문의 틸 브레글레브Till Bregleb 기자는 “함부르크 시가 골목구역을 다시 사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골목구역의 철거계획,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항한 함부르크 예술인들의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였다(Bregleb, 2009). 함부르크 골목구역의 철거에서 보전으로의 전환은 독일뿐만 아니라 도심 재개발을 시도하는 독일 이외의 도시들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제공한다. 골목구역 보전운동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전하면서 도심 재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공문화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험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골목구역은 19세기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부르크 도시재개발의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자인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지를 대변한다. 이처럼 골목구역이 갖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골목구역 보전운동과 이의 관철은 더욱 극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상징이 된 함부르크 골목구역은, 근대 도시개발과 오늘날 도시재생계획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저항, 공존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함부르크는 신자유주의적인 ‘성장하는 도시’, 이른 바 창조도시를 대변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실험하는 전선이다. 이 글은 골목구역 12채 건물에서 전개되는 후자의

실험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온 창조도시 함부르크의 명암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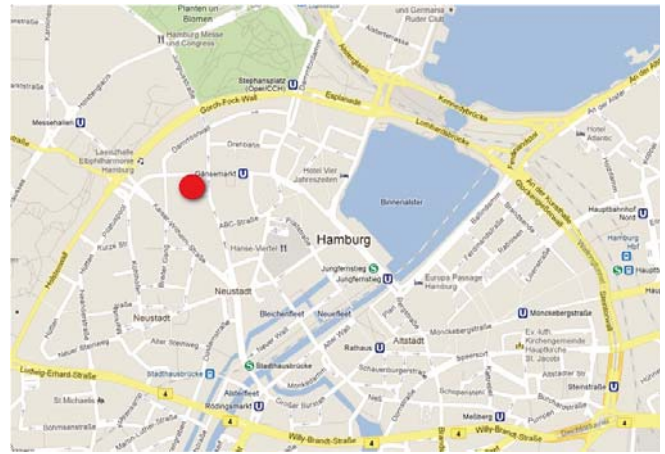


Fig. 1 Das Gängeviertel: 함부르크 도심지 북쪽에 있는 골목 구역의 위치 (위에 빨간 점). 도심지 중심에 놓인 시청에서 약 800m 아래 하펜시티가 있다.(source: <http://maps.google.de> 2012)

2. 함부르크 골목구역

2.1. 골목구역의 형성

골목구역은 골목Gang의 복수와 구역을 의미하는 피어틀 Viertel의 합성어인데, 항구와 도심이 분리되기 이전에 항만 노동자들이나 항만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노동자들이 살던 주거 공간Arbeiterviertel을 말한다. 골목구역은 입구가 좁다란 골목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도로에 접한 상인들의 주택은 안뜰을 갖고 있었다. 이 안뜰에 오두막을 짓고 여기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좁다랗게 개구멍처럼 낸 것이 기원이다. 15·16세기가 되면 함부르크 항구를 통한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유입된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의 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안뜰을 선원, 점원, 도제들의 거처로 만들면서 골목구역이 형성되었다. 무계획적으로 오두막이 지속적으로 들어서서 기존의 골목구역들은 계속 협소해졌으며 이리저리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 초가 되면 함부르크 성곽 외부의 농촌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함부르크는 도심지 북서쪽에 성벽을 새로 쌓고 동시에 신도심지와 신시장 건설하였다(Häfs, 2009). 신 도심지, 즉 항구끝자락부터 시작하여 대시장을 지나 거위시장까지 함부르크의 노동자구역, 새로운 골목구역이 들어선 것이다. 이때부터 함부르크 골목구역은 구도심지와 신도심지의 골목구역으로 구별되었다(Dahms, 2010).



Fig. 2 Hamburg Altstadt and Neustadt: 함부르크 구도심지 (하)와 신도심지 (상) 1835 (source: Pincerno - Hamburg-Altstadt und Neustadt 1835.jpg de.wikipedia.org 빨간색 실선은 경계)

신도심지의 골목구역은 구도심지의 골목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였으나 구도심지의 철거민들이 지속적으로 신도심지로 이주하면서, 신·구 골목구역의 주거환경은 대동소이하게 되었다. 골목구역의 노동자 주거공간은 오두막 위에 또 다시 옥탑 방들이 들어섰으며, 사람들은 기존의 집 밖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좁은 집으로 올라가야만 하였다. 이곳의 세입자는 방을 임대하거나, 또는 잠만 자는 이들에게 빌려주었다(Dahms, 2010). 주거지는 늘어난 수요자로 인하여 더욱 더 비싸졌고, 좁아졌다. 이처럼 신도심의 골목구역의 주거환경은 구도심지의 골목구역 철거와 축소와 연동되어 악화되어갔다.

2.2. 구도심 골목구역의 축소와 철거

1189년 프리드리히 바바로사 황제로부터 자유항행권을 보장받았던 함부르크는 14세기 한자에 가입한 이래 도시 전체가 면세 지역이었다. 항만은 물류창고, 상업시설 및 시민들의 주거지가 직접 연계된 형태로 발달하였다(Kiesow, 2011).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함부르크 시는 항만 및 사회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장하였으며, 1866년에 산토어항, 1875년에 그라스브루크 항, 그리고 1877년도에 슈트란드 항을 건설하였다(Teuteberg, 1972). 아울러 골목구역도 폭발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83-1888년 사이에 함부르크가 통일된 독일제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의 법적 지위가 바뀌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의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1888년 함부르크는 자유무역도시로서의 면세특권을 포기하고 독일의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대신에 약 16 제곱킬로미터 자유항만Freihafen에서만 면세로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는다(Lafrenz, 1994). 이리하여 함부르크의 모든 항에서 이루어졌던 면세 특권이 도시안의 일경구역인 자유항만, 즉 도시 안의 도시, 창고도시 Speicherstadt에서만 허용되었다. 창고도시는 증권 거래소와 상점들이 밀집한 구도심지 인근에 엘베 강을 따라 북쪽으로

떠 모양으로 자리 잡았다.

창고도시의 건설 계획으로 인해, 엘베에 있던 노동자주거지인 케허비더 섬과 상인주거지인 반드라흐 섬의 구도심 시민 약 2만 4천 명이 강제철거 당하였다. 놀랍게도 창고도시 계획에 따른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나 철거민들의 저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 함부르크의 역사학자 페터 보로브스키Peter Borowsky에 의하면, 독일관세동맹 가입과 자유무역항의 상징인 창고도시 건축과 관련하여, 이 시기 자료는 새 시대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으로 가득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Borowsky, 1987).

다만 도시학자 빌헬름 멜홈Wilhelm Melhop이 1895년 남긴 자료에서는, 철거민들이 기존의 주거지 근처에 눌러 앉으면서 철거대상지가 아닌 골목구역의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주거지에서 집세인상을 감수하면서, 더 협소한 공간에 살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렸을 것이라 추측한다(Melhop, 1895). 이는 1880-1895년 사이에 항만 인근 골목구역에 등재된 동거인의 수가 1만 8천여 명에서 약 13만 3천여 명으로 약 8배로 급증하였던 사실에서 확인된다(Nürnberg · Schubert, 1965). 골목구역의 집세는 항구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비쌌던 것으로 보인다(Borowsky, 1987). 한편 창고도시의 건설은 한자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항만시설과 주거지·상업시설의 일체화를 종식시키고 항만과 도심의 분리를 초래하였다(Hein, 2011). 또한 창고도시가 도심지에서 엘베 강으로 향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차단함에 따라 도심과 엘베 강과의 연결이 약 100여 년 동안 단절된다(Melhop, 1895).



Fig. 3 Das Gängeviertel in 1900: 1900년의 골목구역. 집 안에 쌓아 올린 오두막들. 잠만 자는 사람들은 대개가 항구의 교대노동자로, 다른 방이나 부엌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임대한 방의 침대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골목구역에 있는 약 7평의 주거지에 평균 5여명이 살았다.(source: Pincerno - Hamburger Neustadt 12 - 1900)

2.3. 골목구역의 전면적 철거

골목구역은 화재, 급수와 배수시설 부족, 공중화장실 부족, 전염병 발생, 범죄와 정치범의 온상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함부르크 도시계획에 따라 모두 철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기록에 의하면, 1883년 함부르크 시는 도시미관과 인구과밀로 인한 열악한 위생 등을 이유로 구도심지 암 도넨플레트 골목구역 주민 8,000여명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고 한 달 만에 철거를 단행하였다(Schumacher, 1919). 이때, 시정부는 군대식 막사Mietskaserne와 산업화시대에 곳곳에 지어진 공장의 숙소Werkssiedlungen를 만들어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철거된 가족은 임시 주거지의 좁은 공간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Grüttner, 1984).

1892년은 콜레라가 유럽에서 창궐하며 함부르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함부르크는 콜레라로 인해 이 해에만 8,600명에서 17,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계기로 약 12,000-15,000명에 이르는 중산층들은 구도심 외곽으로 이주하였으며, 골목구역은 콜레라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Hilger, 1991). 콜레라 창궐과 연루된 공중위생의 문제와 더불어 함부르크 시는 1893년 대대적인 재개발 계획을 단행하며 이는 골목구역의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였다. 1893년 건설된 카이저-빌헬름 신작로는 신도심지 골목구역을 관통하여 남동쪽으로 뻗어나갔는데, 이 때 이 지역의 골목구역들이 다 철거되었다. 약 24,000여명이 일터에서 가까운 항구근처의 주거지를 잃고 강제 이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Melhop, 1895).

1896년의 항구노동자 파업은 골목구역 철거에 따른 항만에서 근접한 노동자 주거지 부족에 대한 시정부와 시의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신도심지의 남쪽 골목구역의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골목구역 재개발은 건물주가 손해배상 액수를 과도하게 청구하여, 오른 집세를 감당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1901년 남쪽 골목구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집세인상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도심지 외곽, 밤베크나 베텔과 같은 노동자 주거지로 이주해갔다. 시정부가 재개발 기간 중에 그 주변에 임시 거처로 오두막Bude와 군대막사를 제공하였지만 그 비용이 비싸서 기존 수요자들의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Melhop, 1895).

1897년 완공된 시청은 중앙역까지 대로로 연결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변의 골목구역은 모두 철거되었고 노동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물이 되었다. 1903-1914년 사이에는 시청-중앙역-증권거래소를 연결하는 지하철과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도심지 골목구역이 재개발되었고(1903-1914) 동시에 뮌케베르그 대로(1908-1914)가 건설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함부르크의 도시발전계획은 구도심지 북쪽으로 계속되었고, 1921-1930년 사이에 지금의 상관구역Kontorhausviertel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외관상 노동자들과 범죄 집단의 거주지역인 골목구역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중앙역과 뮌케베르그

대로로 이어지는 우아한 상관이 위용을 자랑하는 상인들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Dahms, 2010).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주거지 철거 이면에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집약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이 되풀이 되었다. 이리하여 골목구역은 함부르크 신도심 북쪽에만 잔존하게 되었다. 이곳은 이전에 유대인이 주로 거주하던 곳으로,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살았다. 이런 이유로 나치정부는 잔존한 골목구역의 전면적인 철거 계획을 입안하였다. 1933년 함부르크 외지신문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Hamburger Fremdenblatt,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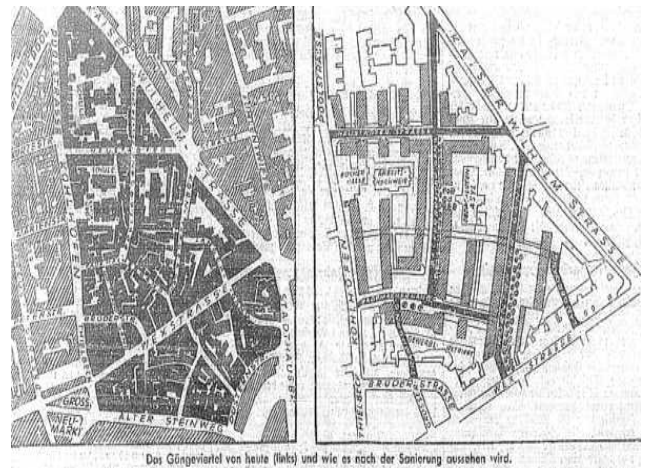


Fig. 4 Hamburg Gängeviertel 1933 before and after the redevelopment: “함부르크 골목구역은 사라질 것이다”는 설명과 함께 철거대상 골목구역과 철거 이후의 청사진 설계도를 대비하여 보도하였다. 1933년 잔존한 골목구역 (좌)과 정화작업 이후의 청사진 (우) (source: Hamburger Fremdenblatt 1933. 4. 25)

골목구역의 남은 건물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부 파손되었고 1958-1964년의 유니레버 건물 신축과 동-서 대로의 건설로 모두 철거되었다(Fink, 2010). 골목구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12채의 건물 중 일부는 18·19세기 건축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53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신도심지 북쪽인 발렌티스캠프, 카파마하라이헤, 그리고 슈페크슈트라세에는 골목구역을 구성했던 12채의 건물이 남아 있다.

3. 함부르크의 도시발전계획과 젠트리피케이션

3.1. 기업으로서의 함부르크

골목구역의 철거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19세기 이래의 도시계획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회상시키면서 동시에 함부르크 시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를 표방한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성장하는 도시’ 정책의 뿌리는 “기업으로서의 함부르크”를 표방한 함부르크의 전

시장인 클라우스 폰 도나니(Klaus von Dohnany(1981-1988)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독일의 지역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시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교를 하였다(Dohnany, 1983). 그의 정책 요지는, 세계가 국가간 경쟁에서 바야흐로 도시간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도시는 기존의 경제와 교역 이외에 삶의 질, 문화, 환경, 미학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이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으로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첫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도시는 시민들이 그곳에 정주하게 만들고 타 지역의 창조적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지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지 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ig. 5 “City in the city”, Hafencity and the Gängeviertel Project. 도시안의 도시로서의 하펜시티 프로젝트 (하, 바다쪽) 그리고 도시안의 도시로서의 골목구역 (상) (source: Hafencity.com)

다분히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도나니의 제안은 함부르크 도시계획에서 도심지 재개발, 고급사무실과 아파트 건설, 이벤트성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랜드마크 빌딩의 건축으로 반영되었다(Berger Schmalfeld, 1999). 이러한 함부르크의 도시개발 전략은 특히 도심재생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정책의 수혜자가 젊고 재능 있는 전문가집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Birke, 2009).

이와 관련하여, 함부르크 도심의 가장 낙후된 지역인 상 게오그와 상 파울리의 사회지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5년-2004년 사이에 이곳에서의 사회복지대상자,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실업자의 비율이 약 30-50%로 내려갔다. 그러나 함부르크 시 전체의 실업률은 오히려 5% 올랐으며 사회복지대상자

의 비율은 약 6%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상 게오그와 상 파울리 지역의 사회복지수급자들과 실업자들의 상당수가 지가 상승 때문에 함부르크의 변두리인 알러뢰헤, 엔펠드, 노이그라벤-피쉬백 그리고 빌헬름스부르크구역의 대단지 연립아파트로 이주했기 때문이다(Mietenspiegel, 2007).

3.2.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

2003년도 함부르크 시장 올레 폰 보이스트 Ole von Beust는 도나니가 선포한 “기업으로서의 함부르크”의 목표를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로 심화시켰다. 이 정책은 독일 통일 이후 대도시에서의 인구감소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 창조적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와 이와 연동한 도심재생 계획이 골자다(Beust, 2003). 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부르크는 광역 인구 400백여 만 명의 성장동력이자 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함부르크는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시 주변의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준 높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부르크 브랜드, 즉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모든 창의적 예술인들이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간다.

셋째, 성장하는 도시는 곧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CDU, 2003). 환경적 지속성은 구도심 재생정책으로 연결된다. 구항을 재생하는 계획이 외곽의 지역개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 때문이다.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은 “수변의 녹색 메트로폴리스”의 특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 경제적 지속성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연관된다. 구도심의 폐허공간이 재생되면 이곳으로의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시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사회적 지속성은 사회적 긴장상태 완화와 사회적 통합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다소 추상적이다.

‘성장하는 도시’의 또 다른 표현인 “엘베 강을 뛰어넘어 Sprung über die Elbe”는 함부르크 도심을 기점으로 하펜시티, 엘베 섬인 베델 그리고 벨헬름스부르크를 통하여 함부르크까지 연계 개발을 표방한다. 도심의 재생이 19세기 말 이래 방치되어온 엘베 강 너머의 주변의 지역의 성장과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함부르크의 도시발전계획에는 막상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시성장’이란 컨셉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실업자들은 방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성장하는 도시’는 창의적 전문 인력의 확보에만 초점을 두는 사실상 경제적인 컨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3-2009년

동안 함부르크 인구는 약 2.3% 증가하였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독일에서 가장 부족하다(Steinbruch, 2011). 연방주 주택은행 LBS-조사단은 장기적으로 함부르크에서 기존의 고가 주택들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도시의 목표 “성장하는 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 공급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Focus, 2006).

함부르크 도시발전전략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빈민가와 낙후지역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물리적 복구 및 개선, 그리고 그 결과 주로 낙후한 빈민주거생활구역이 중·상류층의 주거지 및 상업지구로 탈바꿈하는 현상(박진민, 2009)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원거주자들이 그곳으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Dangschat, 1988). 도심재생으로 인해 전문인력들이 도심에 정착하는 현실 뒤에는 주거지의 고급화로 인한 집세의 인상으로 원거주민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그 여파로 인근 지역의 집세도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하펜시티 프로젝트가 실행된 이후, 재개발 대상 인근인 북쪽의 상 게오그 구역, 서쪽의 상 파울리, 도심에서 떨어진 오펜젠과 에임스뷔텔마저도 집세가 인상되었다(Mietenspiegel, 2003). 또한 “엘베를 뛰어넘어” 프로젝트로 인하여, 벨헬스부그와 베델의 주택가격도 상승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심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장기간 비어 있는 사무실과 상가가 거의 10%에 달한다(Mietenspiegel, 2007).

4. 골목구역의 점거와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험

4.1. 골목구역의 점거

기업으로서의 도시,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로 집약된 신자유주의적인 함부르크의 도시계획은 잔존한 골목구역 12채 건물의 점거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함부르크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시민단체 콤 인디 켄에가 발표한 선언문 “우리의 이름으로 함부르크 브랜드를 팔지 마라”에 압축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창조적인 계급”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들만이 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주장한 이래, ... 오늘날 모든 유럽의 대도시들은 창의적 하이클래스만 끌어당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많은 도시들의 이런 경쟁은, 함부르크 역시 도시정책을 점점 더 “이미지 도시”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모든 창의적 예술가들이 최고의 기회를 얻는 그런 도시 이미지 말이다. 함부르크 도시 마케팅 부서에서는 벌써 이런 “함부르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하여 갈등이 없고,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환상적인 도시, 엘브필하모니와 부자촌 블랑케네즈, 예술가들의 모습과 동성에 퍼레이드, 하펜시티와 레퍼바혼, 크루즈 데이 ... 함부르크는 단 하루도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메가 이벤트가 없는 날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 지른다.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레저가치와 놀 거리를 제공해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점령한 공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썩 공간을 찾아 사라져야 하는 새 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Komm in die Gänge a, 2009).

이 선언문에 따르면, ‘성장하는 도시’ 정책은 개개발 지역의 지가 상승을 초래하여 높은 임대료 때문에 10만개의 사무실이 임대되지 못한 채 비어 있고, 그 여파로 도심지 서쪽의 주택가격도 상승하여 1평방 미터 당 10유로 이하의 월세 주거지가 사라졌다. 10년 안에 사회보호자 주택이 50%로 줄어들 예정이며,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하츠 4(기존법에 비해 사회소외계층의 혜택을 줄인 사회복지법)와 도시주택정책으로 인해 도심지 밖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자 주거구역인 상 파울리와 산젠 피어틀은 파티와 쇼펡장소, 백화점이 들어선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함부르크의 문화정책은 예산의 40%를 엘프필하모니에 배정하고 극우파 백작의 전시박물관에 300만 유로를 투자하며, 구항일대를 재개발하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s를 통해 부자들을 위한 5성급호텔과 47개의 고급 아파트 건립을 승인하였다.

한편 선언문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잔존한 골목구역 12채 건물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이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키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골목구역이었던 이 일대는 대형 백화점과 고급아파트로 재개발되었고, 이제 남은 12채 건물만이 한 때 이곳은 골목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2009년도 5월 9일자 함부르크 조간은 골목구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유니레버 빌딩의 그림자, 사무실과 고급 아파트로 치장된 특징 없는 건물들 사이에 보일 듯 말 듯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 이것이 발렌티스캠프의 골목구역이다(Hirschbiegel, 2009).



Fig. 6 Das Gängeviertel with the 12 historical houses surrounded by the mega-buildings in the urban area of Hamburg, 2009. 도심지 속의 대형 건물들 사이에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골목구역의 12채 역사적 건물들 (source: google.map.das gängeviertel, 2009)

잔존한 골목구역은 겐제마크트에서 가까운 도심지에 있는데, 북쪽으로는 발렌틴스캄프, 동쪽으로는 카파마헤라이헤 그리고 남쪽으로는 슈케크슈트라세에 걸쳐 12채가 남아 있다. 도심지 재개발 계획에 따라, 2002년도부터 12채의 건물들은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리모델링될 것으로 공표되었다. 당초 함부르크 투자기업인 폭스와 베너 Fuchst & Werner가 이 건물들을 베를린의 하크센 궁궐 Hackschen Höfe처럼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구역으로 재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시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2008년 사업주체가 네덜란드 투자기업인 한제바스트로 Hanzevast로 교체되었다. 한제바스트는 이곳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2009년도에 소개된 건축설계도에 의하면,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건물 12채의 약 80%가 철거되며 나머지는 재개발되거나 리모델링될 것으로 알려졌다(Gängeviertel, 2010).

이리하여 골목구역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화가, 디자이너, 도시설계사, 사진가, 건축가, 영화감독, 행위예술가, 기획사, 무대설치가 등 약 200여명의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2009년도 8월 22일부터 골목구역을 점거하였다. 이들은 9월 22일 도심지 거리축제를 시작으로, 골목구역 내에서 전시회, 영화상영, 작가모임, 콘서트, 시민강좌 등을 통해 골목구역 보전과 창조적 활동 공간으로의 사용,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전을 요구하였다. 골목구역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또 도시개발이 초래한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성장하는 도시’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나아가 함부르크의 도시개발이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억의 장소로 골목구역이 기록적 역할을 한 것이다.



Fig. 7 Das Gängeviertel Neustadt, development of a new creative quartier. 새로운 창조도시로서의 골목구역을 꿈꾸며(source: google.de.2010)

4.2.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론에 근거한 함부르크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은 글로벌화되는 포스트산업도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쇠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3T, 즉 기술 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지수를 높여야 한다(플로리다, 2002). 하이테크 지수가 높은 도시는 보헤미아 지수 및 게이 지수 역시 높고, 그래서 창조도시는 다양한 창조적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관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정성훈, 2012). 그러나 창조도시론은 도시 속의 인간 불평등 문제와 도시로부터 원거주민 배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완화된 표현,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성훈, 2012). 그렇다면 ‘성장하는 도시’ 정책의 대안은 무엇일까?

2009년도 11월 콤 인디 갱에의 선언문 “우리 이름으로 함부르크의 브랜드를 팔지마라”의 요지는 “도시는 브랜드가 아니고, 기업도 아니며, 공동체다”로 압축된다. 여기에 따르면,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이해그룹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함부르크 시가 골목구역의 보전을 결정한 직후인 2009년 12월 18일에 발표된 “도시에 대한 권리-사회·복지적 그리고 정의로운 도시를 위하여-”이다.

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 함부르크 시가 함부르크-슐레스비히 은행(HSH)과 엘브필하모니, 지하철 노선 U-4 건축을 위해 사회복지와 문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함부르크 시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 도시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 도시에 대한 권리,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권리는 정치나 경제, 도시정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도시를 원한다(Recht auf Stadt (Hamburg), 2009).

창조적인 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표방한 이 선언문은 콤 인디 갱에가 골목구역의 보전을 위한 협상 파트너 단체로 함부르크 시로부터 공식적 인정받음으로써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도시는 공동체이며,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 입각하여, 12채의 건물의 활용계획과 운영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보전이 결정된 골목구역 12채는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될 것인가? 콤 인디 갱에에 의하면, 골목구역은 한 구좌에 500유로를 내는 회원으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2010년 11월 15일에 결성된 조합은 7,500여개의 구좌, 즉 3백 75만 유로를 종자돈으로 삼아 골목구역의 보전계획을 책임지고 있다. 2010년 4월 콤 인디 갱에가 발표한 골목구역 설계도(Fig. 8 참조)에 의하면, 골목구역은 작업, 주거, 휴식의 복합공간을 지향하며, 도시문화재 보호, 공간 활용과 분양, 조합의 구성과 보전할 건축의 설계, 그리고 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Gängeviertel, 2010). 이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골목구역은 역사적 건축물로서 보전한다. 골목구역은 350년간의 함부르크 건축문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이 어떠한 물질적 빈곤과 좁은 공간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국민국가 성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잔존한 노동자들의 주거구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골목구역은 도시를 위한 공간, 즉 다용도 공간이면서 일체화된 공간으로 재생된다. 다용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상점주인, 예술가, 원거주민, 그리고 시정부 관계자가 함께 골목구역을 설계하며, 건물주들은 경제력이 약한 세입자와 아마추어 상인을 위해 사회문화적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은행이 저리의 대출 제공과 골목구역을 위해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제전략을 제시한다. 다양하면서도 일체화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골목구역은 예술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거와 일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친사회적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골목구역은 예술과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재생된다. 골목구역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핵심공간은 시민들의 예술적 문화적 소통의 고리가 될 '공장Fabrik' 건물인데(Fig. 8의 ⑦번) 전시의 장이면서 공부모임과 세미나 장소로 활용된다. 일상적인 삶과 예술행위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교류되기 위해서, 골목구역은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운영되며 도심 안의 공간으로서의 다양성을 담보하여 특히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 도시,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넷째, 골목구역은 삶과 일터가 일체화되는 공간으로 재생된다.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골목구역은 다양성과 혼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역사적 골목구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삶과 일터가 일체화되어야 한다. 1층은 공공장소로 사용하고, 2층 이상은 주로 전시장, 작업장, 그리고 주거지로 한다. 골목구역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설계하고 개발하며 실행하여, 그래서 '성장하는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다섯째, 골목구역은 상업적 공간으로 재생될 것이다. 골목구역의 상업 공간은 도심지에 있는 상점들과 달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창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의 시민들이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특정한 입지에만 개점할 수 있는 도심지 커피하우스 체인이 아닌 예술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닌 커피숍을 이곳에서 운영해야 한다. 상업적 공간에는 탁아소가 있어야 하며, 작가들의 공간, 갤러리, 수공예사들의 작업 공간, 음악 공간 등이 들어서야 한다. 골목구역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세를 통한 건물의 자립행정이기 때문에 상점의 수익은 중요하다.

이렇듯 골목구역 12채 건물을 둘러싼 철거와 보전 다툼은 함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이 지불 가능한 삶의 공간에서 살수 있다는 실험, 골

목구역 프로젝트를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의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도시는 어떤 형태로 계획·운영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험 성공은 함부르크 도심의 다른 공간에서도 골목구역처럼 지불 가능한 삶의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이다. 함부르크 골목구역이 생동감 있고 함께 사는 도심지 공간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실험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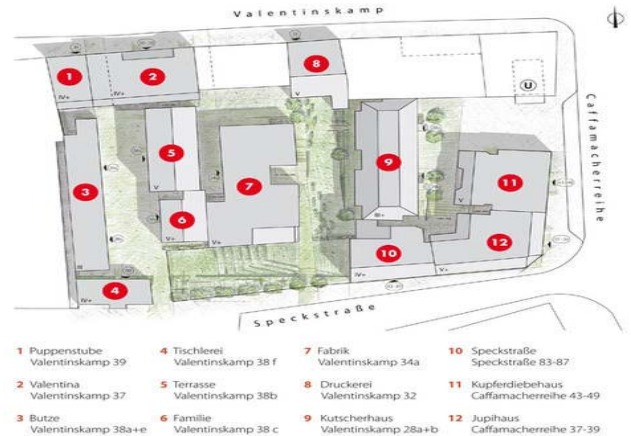


Fig. 8. Concept of the Gängeviertel

- 골목구역 12채 건물의 다용도 사용공간에 대한 설계도
- 건물 1: 작업공간, 인형의 집과 상점
 - 건물 2: 작업공간과 전시장, 쉼터
 - 건물 3: 쉼터, 사용도 다양화
 - 건물 4: 목재소와 전시장, 상점
 - 건물 5: 쉼터, 테라스, 문학인들의 공간
 - 건물 6: 가족들의 공간
 - 건물 7: 공장, 골목구역의 중심지, 만남의 장소
 - 건물 8: 인쇄소, 문학인들의 공간
 - 건물 9: 마구간, 사용도 다양화, 상점
 - 건물 10: 자유용도, 음악인들의 공간, 쉼터
 - 건물 11: 공예품 작업실과 상점
 - 건물 12: 젊은이들의 쉼터 및 작업실
- (source: Gängeviertel: www.gaengeviertel.info)

5. 맺음말

2009년 시민단체, 콤 인디 쟁에는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의 철거에 반대하여 함부르크 시로 하여금 보전으로의 정책 수정과 시민들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았다. 골목구역 보전운동이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함부르크 시가 추진 중인 '성장하는 도시'에 입각한 도시재생, 이른바 창조도시(이, 2012), 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의 모색 또한 그에 못지않은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으로서의 도시에 근거한 ‘성장하는 도시’와 공동체로서의 도시에 근거한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골목구역 12채 건물의 철거와 보전을 놓고 충돌하였다.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의 요구가 신속히 수용됨으로써, 이 충돌은 함부르크 시정부의 유연성과 시민단체의 역동성 때문에 봉합을 넘어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골목구역이 주목받은 이유가 이 뿐만은 아닐 것이다. 골목구역은 함부르크 도시 역사를 압축해 놓은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함부르크 시가 국민국가로 편입되면서, 도시의 구조가 변경되는 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항만과 주거지, 상업시설, 사회기반이 일체화되어 있던 도시 공간배치는 항만과 주거지, 상업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분리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공간인 골목구역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철거대상이 되었으며, 개발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는 더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났다. 잔존한 12채의 건물은 건축양식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1990년대 이래 함부르크 시는 신자유주의적인 도시개발정책에 매진하여왔다. ‘성장하는 도시’는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구도심의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치된 항만을 이용하여 구도심에 주거지, 상업시설, 사회기반시설을 다시 일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함부르크의 도시공간 구조는 국민국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국가 편입 이후의 도시개발과정과 1990년대 이후의 도시재생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개발이익의 편식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철거이다. 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가 주장되고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함부르크 골목구역 프로젝트는 창조도시론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라 그 대안의 실천·실험이란 점에서 거의 유일하다. 골목구역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적어도 ‘성장하는 도시’ 정책의 폐단과 그 역사성을 환기시키고 그 대안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B00001).

참 고 문 헌

[1] 박진빈(2009), “1970년대 이후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신자유주의 시대 대도시의 운명,” 역사비평 89호, p. 334.
 [2] 이상봉 외(2012), “창조도시와 로컬리티, 좌담회,” 로컬리티 인문학 7.

[3] 정성훈(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제 23권 1호, pp.389, 394.
 [4] 정진성 · 조현천(2011), “유럽 해항도시 항만재개발 롤모델로서 하펜시티 함부르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5권 6호.
 [5] 플로리다, 리차드(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 전자신문사, p. 379.
 [6] Berger, O. Schmalfeld(1999), A. Stadtentwicklung in Hamburg zwischen ‘Unternehmen Hamburg’ und ‘Sozialer Großstadtstrategie’ in Dangschat, J.(Hrsg.) (1999): Modernisierte Stadt. Gestaltende Gesellschaft. Ursachen von Armut und sozialer Ausgrenzung. Opladen, pp. 318-319.
 [7] Berliner Linie(1981), http://de.wikipedia.org/wiki/Berliner_Linie
 [8] Beust, Ole von(2003), Rede vor dem Übersee-Club, 2003. 9. 22.
 [9] Birke, Peter(2009), “Herrscht hier Banko? Die aktuellen Proteste gegen das Unternehmen Hamburg,” in Soziale Geschichte Online 3 pp. 148-191 hier p. 158.
 [10] Borowsky, Peter(1987), “Hamburg und der Freihafe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888 - 1914,” in Schlaglichter historischer Forschung, Hamburg, 2005 pp. 132, 133.
 [11] Bregleb, Till(2009), “Sieg der Freibeuter. Richtungswechsel in der Stadtentwicklung: Hamburg kauft das Gängeviertel zurück,” in Süddeutsche Zeitung, 17. 12. 2009, p. 11.
 [12] CDU Hamburg(2004), Regierungsprogramm, pp. 26-30.
 [13] Dahms, Geerd(2010), Das Hamburger Gängeviertel. Unterwelt im Herzen der Großstadt, Hamburg, pp. 30, 34, 50, 73, 161, 201.
 [14] Dangschat, J. S., Friedrichs, J.(1988), Gentrification in der inneren Stadt von Hambur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des Wandels von drei Wohnvierteln. Hamburg,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Stadtforschung, Hamburg.
 [15] Dohnany, Klaus(1983), Unternehmen Hamburg, Vortrag vor dem Übersee-Club, 1983. 11. 29.
 [16] Fink(2010), “Gängeviertel, Ghetto, Geld und Gänge”- ein Lehrstück. In Hamburger Abendblatt vom 25. 09.-2010- Online unter <http://www.abendblatt.de>
 [17] Focus(2006), www.medialine.de
 [18] Gängeviertel EG(2010), Gängeviertel - Genossenschaft gegründet. Online unter: http://das-gängeviertel.info/uploads/media/gvegkomplett_0.1.pdf,
 [19] Grüttner, Michael(1984), Arbeitswelt an der Wasserkante. Sozialgeschichte der Hamburger Hafentarbeiter 1886-1914, Göttingen.

- [20] Hamburger Abendblatt,(2009. 11 .09)
- [21] Hamburger Fremdenblatt(1933. 04. 25)
- [22] Häfs, Wilhelm(2009), Aufriss der Geschichte Hamburg, Norderstedt.
- [23] Hein, Carola(2011), "Hamburg's port cityscape: large-scale urban transformation and the exchange of planning ideas," in C. Hein(ed.) Port Cities, Dynamic Landscape and Global Networks, Routledge, pp. 184-190.
- [24] Hilger, Marie-Elisabeth(1991), "Seuchen verändern die Stadt. Soziale Ungleichheit vor Krankheit und Tod im 19.Jahrhundert," in Die alte Stadt, Heft 2, 1991, pp. 154-172 hier p. 161.
- [25] Hirschbiegel, Thomas/Masumy, Jane(2009), "Rettet unser Gängeviertel!," in MoPo.de. 2009. 5. 9.
- [26] Kiesow, Rolf Hammel(2011), "Funktion und Bedeutung der hansischen Hafencities," i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mmittee of Maritime Culture Institute proceedings, pp. 38-40.
- [27] Komm in die Gänge a.(2009), "Not in our name, Marke Hamburg" nionhh.worldpress.com/about(2009. 10. 30).
- [28] Komm in die Gänge b.(2009), "Recht auf Stadt" www.rechtaufstadt.net/recht-auf-stadt,(2009. 12 .18)
- [29] Lafrenz, Jürgen(1994), "Spekulationen zur Speicherstadt in Hamburg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in Die alte Stadt, Heft 4, 1994, pp. 318-383, p. 320.
- [30] Melhop, Wilhelm(1895), Historische Topographie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von 1880-1895. Hamburg 1895, p.46, 51, 53
- [31] Mietenspiegel(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n Statistiken zum Wohnen Hamburg, Mietverein in Hamburg im Deutschen Mieterbund.
- [32] Nörnberg/ Schubert(1975), "Massenwohnungsbau in Hamburg. Berlin 1965," p. 120.
- [33] Recht auf Stadt(Hamburg)(2009), www.rechtaufstadt.net/recht-auf-stadt
- [34] Schumacher, Fritz(1919), Wohnungspolitik in Hamburg von 1818-1919. Hamburg 1919, p. 10.
- [35] Steinbruch, A.(2011), "Hamburger Innenstadt soll bewohnbarer werden," in Handelsblatt (2011. 03. 16). www.handelsblatt.com/finanzen/immobilien/nachrichten/hamburger-innenstadt-soll-bewohnbarerwerden/3895108.html.
- [36] Teuteberg, Hans J.(1972), "Die Entstehung des modernen Hamburger Hafens (1866-1896)," in Tradition. Zeitschrift für Firmengeschichte und Unternehmerbiographie 17 (1972) vgl. dazu und zur Diskussion über Dock-oder

원고접수일 : 2012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6일
 원고채택일 : 2012년 8월 7일